

# 사 설

고성군청이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로 인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공문서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 4억여 원을 허위로 교부한 고성군청 농정산림과 직원 4명과 축산업자 2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고성군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과 김모씨가 보철 치료를 해주고 총 975만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향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 의혹들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설마' 했더니 '역시나' 였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

면 일부 주민들은 '때도 자꾸 맞으면 멧집이 생긴다'는 속담처럼 이처럼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지역 사회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횡령과 뇌물수수 등으로 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경찰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비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수가 공무원을 통제할 힘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무원

의 부적절한 행위나 비리 관련 사안들이 수두룩해서 언제 또다른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청정 고성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낳아 행정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실추시킨다. 따라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는 그동안 온정주의가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을 만 들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온 만큼,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 비리를 감시하며 잘못을 꾸짖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침 7월 1일부터 공직윤리 재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고성군청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한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 때도 자꾸 맞으면 멧집이 생긴다지만...

달아 비리가 발생하고, 이런 영향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급기야 황종국 군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무원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전 공무원이 심기 일전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교육, 감사 등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들을 믿고 일을 맡기며 시시콜콜한 것은 따지지 않는 황군수의 업무 스타일을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성군청은 이번에 드러난 사건 외에도 모 고위직 공무원이 립살롱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가 군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아직도 공무원들

항상 생각과 배우는 입장에 서는 姿勢(자세)는 겸손이다. 어떤 독자 한 여인과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사실과 금강칼럼은 반드시 읽는다". 이어서 부인은 "한자가 있어 읽지 않는다"고 했다. 듣고 있던 필자는 "공부를 하여야 세상 돌아가는 줄도 안다"고 卽興的(즉흥적)으로 대응하였더니, 묵묵부답이더라.

진리를 배우는 것은 一朝一夕(일조일석)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항상 생각하고 익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광전자 시대에 살고 있는 고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글이나 신문물을 구독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데, 말과 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공부하는 데는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정리하는 것이 단계라면 모든 일은 한계가 있기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유익한 말을 듣거나 좋은 글이 있으면 즉시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 토머스 에디슨도 이동하는 사무실이라고 부를 만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생동안 적어둔 노트가 3,400권이 된다는 것.

르네상스시대의 최고 천재라고 부르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0년 동안 인체 미술 과학 문학 등 원리를 Atlanticus(어틀랜티쿠스) 사전에 기록했다. 자동차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적어둔 기록이 수천장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철두철미한 메모와 탐구정신을 엿볼 수 있다.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중력, 연습과 연상이다. 일곱, 사색에 잠여 암기하는 것이다. 방법은 핵심 개수만 생각한다. 여덟, 이러한 사실을 정리 기억해 이해한다. 아홉, 실천의 열쇠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수련과 자기관리만이 과제를 해결하는 배움이요 실행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지혜의 길

우리나라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은 19년간 유배생활 중 600권의 저술을 남겼다는 것. 특별히 自警(자경 : 자기를 일깨워준 종심) 중 육경(유교의 6경전)과 사서(유교의 4기본 경전)를 정독과 메모를 하여 많은 경문에 좋은 글을 남겼다.

요즘은 노트북 아이패드를 이용하거나 신문 잡지 TV 라디오 메모지를 이용한다. 무엇보다도 적어둔 글, 기억 암기하는 기술방법으로 기억해 둬야 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면 좋을 까. 일반적으로 한 가지 기록을 소개하여 보면, 언제 어디서든 적어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예를 들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국의 추천과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는 6월21일자 보도를 접하고 문득 머리에 떠오를 때 잡자던지 깨어있던지 바로 기록한다. 2012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그 문제 해

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우선 지구적 세계적으로 산적된 사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은 1국 1건 해소주의, 즉 한나라의 하나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원리에 따라 원칙이 통하여야 인류의 고민 갈등 불만의 불씨가 다소 사라지지 않겠는가. 빈곤국가엔 가난을, 부유한 국가는 빈곤국가에 대한 배려에 힘써 해결해소할 수 있는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 면밀히 관찰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보고 배워 따라야 한다는 것. 비교도 해보고 다른 사람과 살펴서 장단점을 알아낸다. 셋, 자신의 속기로 적는다. 전체의 뜻과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 넷,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본다.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한다. 다섯, 이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부연이 필요하다는 것.

여섯, 본인 나름의 기억술을 통하여 오래 마음에 새겨둔다. 기억술의 핵심은 집

전후에 이어 계속 호산과 대산을 들어본다. 20)小兒백리창(소아 악물중독) 마늘을 썰어서 자주 붙인다. 21)해식중독(게를 먹고 일어난 병) 큰 마늘껍질을 벗겨 삶아 먹으면 병은 사라진다. 22)토혈(피를 토할 때), 비혈(코피가 날 때), 대장하혈(큰 창자에서 출혈할 때) 응급처치로 마늘을 찢어서 두 발가락 사이에 천으로 쌓아서 붙이면 병세는 호전된다. 23)발가락 사이의 티눈엔 껌질 벗긴 마늘을 찢어 티눈에 2~3회 바르면 치료된다. 23)소변이 막힐 땐 보조치료가 된다. 마늘 1통 산치자 14개 소금 1돈(3.75g)쯤 함께 찢어서 천으로 쌓아서 배꼽에 붙인 뒤 잘 덮어 습기가 증발되지 않도록 하고 마르면 다시 붙인다. 계속하면 효용이 있다. 24)뱀 지네에 물렸을 땐 마늘을 찢어서 짜서 찌꺼기를 물린 곳 상처에 바르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응급처치법이다. 25)전신풍습양종(온몸이 습하고 종기)과 진물엔 백약무효인 경우 매 식사 때에 마늘 1통 4~5쪽을 계속 먹으면 효과가 있고, 초기 수종병(혈액성 성분이 조직 안에 많이 나와 몸이 붓는 병)에도 효용이 있다.

### ◇편집국에서

○...고성군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화진포 등 시범 해변 4개소를 비롯해 총 26개소의 해변을 운영한다. 고성지역의 해변은 전국 최고의 수질과 모래사장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민들은 올 여름 해변 운영을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해변 운영 책임자들은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